

## 로버트 치좀 박사, 이사야의 종의 노래, 3차시 : 주님의 고난받는 종 ( A ) ( 이사야 50:4-6과 52:12-53:12)

로버트 치좀 박사님의 이사야 종의 노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3차시, 고난받는 주님의 종, A부입니다. 이사야 50장 4-6절과 52장 12절-53장 12절입니다.

우리는 처음 두 종의 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노래에서 주님의 종은 포로로 잡혀 죄악에 물든 이스라엘과는 구별되며, 야곱 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분은 정의의 투사이십니다.

그는 이 땅과 열방에 정의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는 언약의 중재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 언약을 중재하여 노아의 명령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새 언약을 중재하여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종의 노래에서 그 역할을 맡은 새로운 모세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반대의 기미가 있었고, 어쩌면 고난을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종의 임무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를 반대하고 심지어 고난을 안겨줄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 두 곡에서 부차적으로 소개되었던 그 고난의 모티브가 이제 세 번째 종의 노래와 네 번째 종의 노래에서 핵심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 50장에 있습니다. 4절부터 시작하는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제게 그분의 대변자가 될 능력을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배우는 자의 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배우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제게 그분의 대변인이 될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종을 선지자로 묘사하는 모티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을 왕족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또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대신하여 말씀하시니, 내가 지친 자들을 어떻게 도울지 알게 됩니다. 마치 첫 번째 종의 노래처럼 들립니다. 그분이 오셔서 상처받고 죽음의 문턱에 선 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나를 깨우십니다.

그분은 제가 제자들처럼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도록 저를 깨어 있게 하십니다. 그분은 주님께 배우고, 어려움에 처해 지친 이들에게 주님의 뜻을 전하고 계십니다.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좋은 주님께서 자신을 택하셨고, 자신이 사명을 완수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할 일을 주셨고, 그는 그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6절은 지금까지 우리 노래에서 고통에 대한 가장 분명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공격하는 자들에게 등을 내어주고, 내 수염을 뜯어내는 자들에게 턱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모욕과 침 뱉음에도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시련 속에서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그분께서 이런 굴욕을 겪으셨는지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저를 도우시므로 저는 굴욕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굳건한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수난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의롭다고 하실 분이 가까이 계시니,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느냐? 서로 대면 하자 . 누가 나를 고발하겠느냐? 그가 나에게 도전하게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나니 누가 감히 나를 정죄하겠느냐? 보라,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아지고 종이 값아먹을 것이다.

그를 종으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 하지만 10절과 11절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들을 노래의 일부로 포함시킬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누가 그의 종에게 순종하느냐?" 이 질문들은 종이 방금 한 말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그의 종에게 순종하겠습니까? 빛 없이 깊은 어둠 속을 걷는 자는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그의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마치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방금 말한 종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불화살을 장비하는 너희 모두는 너희가 피운 불의 빛 가운데로, 너희가 불붙인 불화살 가운데로 걸어라. 이것이 너희가 내게서 받을 것이다.

당신은 고통스러운 곳에 누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지시를 받는 종의 말에서 본을 보이고 인도를 따라야 한다고 암시하는 10절과 11절을 포함시킨다면, 바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이 말했듯이 주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은 그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종의 노래 중 세 번째인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고난이라는 개념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이 노래가 종의 노래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노래를 종의 노래, 4절부터 9절까지, 10절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한다면, "너희 중에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누가 그의 종에게 순종하느냐?"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구절의 핵심은,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그분의 종이 하는 말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종에게 지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전에도 보았던 것과 같은 것들을 몇 가지 보게 됩니다. 그는 주님의 대변자입니다. 49:2절 두 번째 노래 시작 부분에서 말씀하셨죠. 그는 기꺼이 고난을 받으십니다. 이 노래 6절에서 말씀하셨고, 다음 노래에서도 분명히 그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대에 직면했을 때의 그의 끈기는 42:4의 첫 번째 노래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변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의 확신은 두 번째 노래에도 표현되어 있으며, 네 번째 노래에서도 살피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피본 종의 사명과 그가 그 사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 고리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노래에서 우리는 먼 미래를 내다봅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회복되고, 죄 많은 야곱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는 열국과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중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미 노래에서 암시했듯이,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네 번째 노래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와, 이 종이 왜 이렇게 말하는 거지?"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가 직면한 이 반대와 굴욕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그는 주님께서 자신을 변호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종의 노래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 당신의 종을 변호해 주시겠지만, 그 종은 고통을 겪을 것이고, 이 고통을 그에게 가져다주실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종의 노래로 넘어가 봅시다. 보통은 이사야 53장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이 노래는 52장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는 장 구분이 이상적이지 않은 또 다른 예입니다. 누군가는 이 구절들이 다음 내용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지만, 분명히 그렇습니다.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주님은 본질적으로 "내 종은 성공할 것이다, 그는 높아질 것이다, 그는 큰 고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 큰 고통을 받아서 더 이상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습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부했던 나라들, 그를 거부했던 왕들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그를 변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보다 더 높은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어지는 내용과 함께 읽으면 알 수 있지만, 이사야 53장 끝까지 읽어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그 종은 고난을 겪었지만, 내가 그에게 상을 주고 변호할 것이며, 그가 기꺼이 죽음을 감수했기에 무리와 함께 몫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를 높여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같은 노래처럼 보이네요. 우리는 이것을 인 클루시 오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처음 주제는 똑같습니다. 종의 고난과 승천, 종의 정당성입니다. 그리고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52장의 마지막 세 절을 노래의 서론이자 결론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종의 변호라는 주제는 본문을 괄호로 묶는데, 제가 말했듯이 문학 비평가들은 이를 포괄(inclusio)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를 프레임(frame)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노래의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 보죠. 진행하면서 조금씩 언급하겠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hine' ('보다'라는 뜻)으로 시작하는데, 주의를 끌기 위한 장치입니다.

보세요.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내 종을 가리키시는 말씀이시니, 내 종은 성공할 것이다, 라고 번역하겠습니다.

사실, 히브리어로는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제 종이 지혜를 보일 것입니다. 음, 성경적 지혜 사상에 따르면, 지혜로우면 이상적으로는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그렇습니다. 지혜는 성공을 가져오고, 어리석음은 자멸을 가져오며, 온갖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접하는 것은 바로 환유입니다.

지혜로움은 성공의 원인이자 결과이며 결과입니다. 이 맥락에서 지혜로움은 눈에 보이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보세요, 하인아,

어쩌면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겠네요. 지혜를 발휘하여 성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번역자로서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이라는 표현을 택하겠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는 높아지고, 높이 들리고, 크게 존귀해질 것입니다. 그의 행동의 결과처럼 들리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의 일환으로 기꺼이 행하려 했던 일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위해 행하실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 후반절, 즉 13절 후반부는 그에게 성공이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조되는지 보세요. 히브리어에는 동의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저희도, 저도 번역해 봤습니다. "그는 높여질 것이다, 그는 높이 들릴 것이다, 그는 높여질 것이다."

거의 다 같은 말을 세 번이나 하는 거죠. 반복하면 강조하는 거죠. 하지만 세 번이나 하면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덤으로 히브리어 저자는 '메오드' 를 덧붙입니다. 사실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높여지고, 높이 들리고, 존귀해지고, 크게 될 것입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방식보다 더 강조해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옹호와 존귀를 뭐라고 부르든, 히브리어에는 세 가지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에만 국한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을 활용하고, 거기 에 '나'도 더할 겁니다. 그는 크게 높여지고, 드높여지고, 존귀해질 것입니다.

그는 성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놀랐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명이 필요한 양식을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좀 까다롭습니다. '카인' 으로 번역된 단어가 두 번이나 사용되었거든요. 그럼 어떤 카인 일까요? 아마 두 번째 카인일 거예요. 제가 괄호 안의 내용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세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경악했던 것처럼, 그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왜? 그는 이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그는 이 생각을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는,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뭔가를 뿌리거나 놀라게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게 있는 거죠 .

그에게 정말, 정말 나쁜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 그에게도 정말,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고 , 모두가 충격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끝내기 전에, 그는 멈춰야 해요 .

그는 잠시 멈춰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경악했듯이,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 그리고 그는 53장에서 그 사실을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왜, 무엇 때문에 경악했는지를 살짝 엿볼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는 너무 흥측해서 더 이상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디다. 히브리어 원문에 대한 제 해석입니다.

그의 모습은 너무 망가져서 더 이상 인간처럼 보이지 않았습디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그가 출산을 바라보는 방식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이것은 하인의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멜 깁슨과 그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덕분입니다. 그 영화를 봤을 때, 교회 목사님들과 신학교 교수님들께서 저희 교회에서 몇 분이나 가셨는데, 저희가 다시 돌아올 예정이었기 때문에 신학교 교수님들이 영화 보러 온 모든 분들을 보고해 주실 예정이었거든요. 모든 분들을 초대했거든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다시 오셨고, 저는 그 영화에 대해 잠깐 이야기할 수 있는 교수님 중 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와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수난에 대해 읽었을 때, 이 영화 이후로는 예전과 같은 감동을 느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깁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으니까요. 정말, 정말 주저하지 않았습디다. 그리고 짐 카비젤도 기억하세요. 그는 그리스도의 형제였고 , 영화를 위해 아람어를 배웠습디다.

짐 카비젤도 못 알아볼 정도였어요. 개네 화장 진짜 잘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가르치는 거니까요.

그 영화를 보고 로마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등등을 읽다 보니 지금 생각이 나네요. 예수가 그랬잖아요. 그분이 겪으신 채찍질은 꽤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 그리고 아시다시피, 가끔 사람들이 그 채찍질 때문에 죽기도 했잖아요.

그러니 혹시 보셨다면, 수난극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종이 꺾고 있는 고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정말 훌륭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사야를 가르칠 때, 학기 과제로 네 번째 종의 노래에 대한 주해 논문을 쓰는 것이 있는데, 학생들은 히브리어와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 구절은 히브리어가 다소 난해하기 때문에 매우 학문적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언적인 시라고 할 수 있죠.

창세기를 읽는 것과는 다릅니다. 훨씬 더 어렵죠. 제 학생 중 한 명이 과제를 제출하면서 "이건 제게 신앙적인 연습과 같았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제를 다 끝냈을 때쯤엔 눈물이 났어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시죠. 여기 묘사된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인간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고, 흥측하고, 상처투성이에, 사실상 펄프처럼 구타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도 포함될 수 있지만, 저는 십자가에 이르는 과정, 말하자면 예비적인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은 "그가 이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부분은 번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번역은 "그가 많은 민족에게 뿌릴 것이다"입니다.

이 동사 형태로 꽤 자주 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관용어가 쓰일 때,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물을 뿌릴 때, 보통 뿌려지는 대상 앞에 전치사가 붙는데, 이 경우에는 그 전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전통적인 번역인지 잘 모르겠어."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다면 마치 하인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시깡아요. 전치사는 생략될 수도 있겠죠. 아시다시피, 시에는 생략 부호가 많아서, 때로는 암시적으로 표현된 단어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뿌리는 것이라면, 제 생각에는 그 종이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아시다시피, 그는 왕이었고, 이 종의 노래에서 분명히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기서 제사장적 차원이 소개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노래 후반부인 53장에 제사장적 언어가 등장할 테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으시다면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경악했지만, 사실 그는 물을 뿌려 많은 나라를 정화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의 의식에서 그들은 히속을 가져다가 피나 물을 가져다가 제사장이나 다른 사람에게 뿌리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여기서는 의식적인 정결 행위가 암시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고난과 사역을 통해 실제로 민족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다"라는 비유가 통할지도 모르지만, 모두가 그것에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구문론 같은 것을 근거로 반대하기 때문에, "놀라다"라는 단어를 더 선호합니다. 70인역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들은 "그를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다른 방식으로 다시 충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게 하다'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음, 어쩌면 이진 동음이의어일지도 모른다고, 아주 드문 동음이의어일지도 모른다고 말할 겁니다. 제 생각에 BDB의 옛 사전은 아랍어를 어느 정도 인용했지만, 많은 나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문맥상 더 잘 맞을지도 모르지만, 거기에 있는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뿌리다'라는 단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이제 많은 민족을 흠으실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실 것이며, 아니면 그들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왕들이 그의 높임에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문자 그대로, 본문은 왕들이 입을 다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을 잃을 것입니다. 제가 좀 바꿔 말하면, 저는 그의 승천에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정의롭습니다. 입을 다물고 말을 잃을 것입니다. 넷째, 그들은 예고되지 않은 것을 목격하고, 듣지 못했던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고되지 않은 것을 목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종이 고통받는 사람으로만 여겼을 뿐, 그가 그렇게 높은 지위로 승격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종이 성공할 것이다. 그는 크게 승격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상했다는 건 알지만, 그는 열국을 놀라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들 앞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나오는 '높임'에 대한 말씀은 왕이 그들보다 높임을 받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왕들은 그저 그런 게 아니라, 도저히 그것을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충격이겠죠. 그가? 그가 만물의 왕이 된다 고요 ? 본디오 빌라도를 생각해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던 날을, 혹은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던 날을 생각해 보세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의 추종자들을 핍박했던 온갖 왕들과 통치자들, 그리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 그들이 그분 앞에 서서 모든 무릎을 꿇고, 우리가 거부했거나 무시했던 바로 그 왕이 만물의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 여기까지가 처음 세 구절이고, 이제 53장 1절에서 우리는 이 드라마에 새로운 인물들을 등장시킵니다.

누가 믿었을까요?제가 번역한 대로라면, 누가 방금 들은 것을 믿었을까요?주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언제 나타났을까요?그리고 다음 구절들에 대해, 우리는 말할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본질적으로 그들이 말할 것은, 우리는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우리가 방금 들은 것은 52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왕의 승영에 대한 발표인데, 그것은 열국의 왕들을 말문 없게 하고 열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그리고 이제 이 무리는, 그들이 누구이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가 방금 들은 이 발표를 믿었을까요?주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언제 나타났을까요?그리고 저는 이들이 주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는 주장을 펼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처럼, 선지자가 백성을 대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충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쑥은 신약 성경에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보고를 믿었을까요 ? 바울은 이 표현을 자신의 상황과 메시지 선포에 적용했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점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구절을 적절하게 사용한 것이지만, 때로는 좌절한 전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우리의 말을 들었을까요? 누가 우리의 보고를 믿었을까요 ? 이 맥락에서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들은 보고를 누가 믿었을까요? 당신이 전하는 보고일 수도 있지만, 당신이 직접 들은 보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세 절을 노래의 도입부로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그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에게 전해진 보고를 누가 믿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종의 승천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야 53장 4절의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난에서 부자가

된 이야기죠. 네, 그 종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누더기 같은 삶을 살다가 이렇게 높은 자리로 승천했거든요. 가난에서 부자가 된 이야기 중 하나죠.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언제 나타났습니까? 문자 그대로, 주님의 팔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주님의 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음, 저는 그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의 다른 곳에서 주님의 팔이 사용된 것을 살펴보면, 그것은 주님의 힘과 능력을 가리키고, 종종 전사로서의 주님의 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화적 맥락에서, 전투에서는 육탄전이 많았고, 전사는 칼을 휘두르고 활을 당기려면 강한 팔이 필요했고, 그래서 전사들은 강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강한 팔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다른 곳에서는 주님의 팔이 주님의 군사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 우리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비롯한 모든 일을 통해 역사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군사적 능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열방을 정복하기 위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오실 때와 두 번째 오실 때처럼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2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싹이 돋아나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돌아났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위풍당당한 모습도,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싶어 할 만한 특별한 모습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 생각에 그들은 많은 경우 단순히 치유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로마에서 자신들을 구출하고 적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줄 군사적 메시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제자들은 떠나갔고, 어느 날 그들 모두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나겠느냐?"라고 물으셨고, 베드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최근에 이곳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아, 그분에게 관심이 좀 있었지"라고 말하겠지만, 결론적으로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마른 땅에서 돋아난 뿌리처럼 싹을 틔우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분을 따르게 할 만한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다가올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종의 승영이 다가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본 것입니다.

그다지 인상 깊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했으며, 고통을 겪고 병을 앓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얼굴을 가렸다.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유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은 있고, 고통을 경험했지만, 이 병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모티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항상 병들어 아프셨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그를 묘사하기 위해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병든 사람 같았고, 심지어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나병이 이 사건의 배경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인 베르나르 둠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병들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쳐다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멸당하고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지만, 질병의 은유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픈 사람들은 때때로 건강해 보이지 않고, 병들고 고통받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며,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멸시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맹인에게 했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읍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읍의 소위 친구들은 그에게 다가와서 그가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엘리바스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읍은 가난한 사람들을 소홀히 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가난하게 만드신 이유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들이 와서 말합니다. "읍아, 네가 큰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운영하시니까. 의에는 상을 주시고 악에는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니까."

당신은 분명히 벌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나요?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큰 병을 큰 죄로 여길 테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보고 그가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들은 욥이 자기가 한 짓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여기서 큰 놀라움의 일부인데, 물론 그 신학을 모든 상황에 적용하면 틀렸기 때문이다. 욥의 친구들은 틀렸고, 무고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비난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시고, 욥이 그들을 위해 중재할 때만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경건하신 분이시니 용서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그 종을 보고 '이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화나게 하는 짓을 했으니, 우리는 그와 아무런 관계도 맺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4절에서 그들은 말하고 있고, 그들은 모든 것의 진실을 깨닫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역사상 언제 일어날지 정확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언적인 시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기 때문이며, 미래의 연대기 측면에서는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보는 것은 이스라엘, 적어도 믿음을 갖게 될 자들이고, 로마서 11장은 그들이 믿는 지점에 도달하여 주님께로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모든 이스라엘은 스가라가 묘사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찢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와 회개하고 울고 애통할 때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종이 실제로 주님의 종이었고,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지점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로마서 11장과 연관 짓고 싶습니다. 유대인이든, 아니면 누구든 예수님을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고난을 무시해 왔다면, "아니요,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대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절부터 그들은 이제 진실로 알게 된 사실과 과거에 잘못했던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가 벌을 받고, 하나님께 공격받고, 자신이 한 일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우리의 질병을 들어 올리시고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자, 그 인식을 보세요. 우리는 그가 단지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병드는 거라고요. 하지만 그는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흥미로운 점은 "들어 올리셨다" 라는 동사가 히브리어에서 질병과 고통 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두 가지 다른 동사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대상들, 즉 그분은 그들의 죄를 지고, 그들의 죄를 지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 따라서 후자의 구절들을 4절과 연결해 보면, 질병과 고통이 죄의 결과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들고 죽지만, 예를 들어 그분 자신의 개인적인 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의 질병과 고통을 들어 올리 셧습니다 . 사실 그것은 그분이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 즉 죄의 죄책감을 스스로 짊어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수난과 십자가에서 죄의 죄책감의 결과를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가 이걸 믿었겠습니까?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계속해서 , 우리의 반역적인 행위 때문에 그분이 상처를 입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분은 죄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페사' 를 사용하셨는데, 이는 반역으로서의 죄를 지칭합니다. 그분은 상처를 입으셨는데, 그 상처의 실체를 생생하게 묘사하는 매우 강렬한 표현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찢어졌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반역적인 행위 때문에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했고, 그분은 놀리셨습니다. 강한 언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반역적인 행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놀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형벌을 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화를 위한 형벌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즉, 형벌은 우리가 결과의 소유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은 벌을 받으셔서 우리가 건강해졌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샬롬을 누군가에게 평화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하지만, 샬롬은 종종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치유받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상처를 입으시고, 짓밟히시고, 그분의 샬롬은 산산이 조각났지만, 이렇게 형벌을 견뎌냄으로써 우리는 샬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회복되었고 치유되었습니다. 그분의 상처 덕분에 치유가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우리는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치유의 대속적 본질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우리가 다 양처럼 방황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각자가 제 길에서 길을 잃었으나, 주님께서서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뺏어쥘수셨다.” 이 번역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흔히 읽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에게 무거운 짐이 지워졌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마 포식자에게 공격당하는 장면일 거예요. 좋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 말이죠.

저는 이것을 선지자께서 우리, 곧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봅니다 . 여기 선지자께서 죄 많은 나라를 대신하여 말씀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 6장에서처럼 그들과 동일시하고 그들을 대표합니다. 저는 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 입술은 부정하고, 그로 인해 더럽혀졌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우리 모두 양처럼 헤매곤 했어요 . 양들은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냥 헤매는 거예요. 길 잃은 양들은 그냥 양처럼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는, 그는 우리 각자를 강조하며, 히브리어 관용어를 사용합니다. 한 사람, 즉 우리 각자는 자신의 길을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옳다고 생각했던 길로 벗어났습니다 .

떠돌이 양, 생각해 보세요. 떠돌이 양은 고립되는 경향이 있어서 매우 취약할 겁니다. 늑대, 사자, 곰 등 어떤 포식자에게든 먹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취약한 거예요. 우리는 방황했고, 각자의 길을 갔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도덕적 기준 등을 따랐고, 그 과정에서 길을 벗어났으며, 취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모두의 죄가 그분을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마치 우리를 파멸시키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죄는 포식자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했습니다. 현실과 비유를 섞어서 말하자면요.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죄가 그분을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 죄의 죄책감이 그분을 공격했다는 뜻입니다. 포식자가 그분을 공격했습니다.

그분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제 생각에 바로 이 장면,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언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 누구인지, 다시 말해 누구인지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종이 예수가 아니라는 주장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로운 남은 자라고 하거나 선지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니, 그는 우리 모두 라고 했어 . 우리 모두라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모두'가 모두를 뜻한다고 생각해.

우리는 모두 양처럼 방황하며 길을 잃었 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주님을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식자, 즉 죄의 죄책감에 의해 멸망되지 않았습니다. 7절에서 그는 혹독한 대우를 받고 고난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유대 공의회 앞에서 몇 마디 말씀하셨습니다. 몇 마디 말씀하셨지만,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신 것에 놀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빌라도가 "내가 네 목숨을 내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가혹한 대우를 받으시고 고난을 겪으셨지만,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자신에게 가하는 형벌과 고통에 순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선지자는 양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는 입조차 열지 않았다.

그러니까 양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는 그랬습니다. 그는 마치 도살장으로 가는 조용한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속죄라는 단어가 들어가기를 바라지만, 도살로 번역된 그 단어는 희생을 뜻하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되었는지 살펴보면 , 이 단어는 양을 식용으로 도살하는 것 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각만큼 직접적으로 희생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그것을 시사합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요점은, 그는 그저 어린 양이나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할 때 사람들은 반대하지 않고, 그분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을 희생으로 암시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쯤에서 세 번째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의미를 요약하고 성찰해 보겠습니다.

로버트 치죤 박사님의 이사야 종의 노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3차시, 주님의 고난받는 종, A부. 이사야 50:4-6과 52:12-53:12입니다.